

2018 우리 가족은 시민 과학자! 지구사랑탐사대 6기 모집



지구사랑탐사대에서 2018년 활동할 6기 탐사대원을 모집합니다! 지구사랑탐사대 대원이 되면 온 가족이 생태 전문가와 함께 자연을 탐사할 수 있어요. 또, 탐사를 수료한 대원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구달 박사님이 만든 '생명다양성재단' 수료증도 받을 수 있지요! 올해 더욱 풍성해진 지구사랑탐사대에 도전해 보세요!



지구사랑탐사대란?

〈어린이과학동아〉와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팀이 함께하는 무료 생태 탐사 프로그램이에요. 온 가족이 과학자의 연구에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과학 프로젝트지요. 탐사대가 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현장교육을 비롯한 연간 생태 탐사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특별한 혜택

현장교육

전국에서 진행되는 탐사 종별 현장교육 무료 참여 기회

인증서 발급

생명다양성재단 인증서 발급(수료 탐사대원 기준)

여름 캠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참여 기회

특별 탐사 프로그램

민물고기, 조류, 개미 등 특별 탐사 무료 참여 기회

생태 탐사 포트폴리오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간 올린 탐사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혜택 제공

'지구를 위한 과학' 프로그램 초대

생생한 현장 탐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기강좌 등 특별 프로그램 초대

모집 안내

지원 자격 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과학동아〉 독자라면 누구나! (정기구독자 우선 선발)

지원 기간 2018년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참가비 무료***

지원 방법 어린이과학동아 홈페이지 (kids.dongascience.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문의 02-3148-0728, 0736
kids@dongascience.com



QR을 찍으면
지사탐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기 주요 탐사 일정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	4	5	6	7	8	9	10	11	12
수원청개구리 탐사									
제비 탐사									
화분매개자와 일원식물 탐사									
귀화식물 탐사									
매미 탐사									
발대식									
특별 탐사									
여름 캠프 특별 탐사									
특별 탐사									
특별 탐사									
수료식									

열혈 탐사대원 소개

신입 대원, 탐사 생물 전공을 수료하다!

지구사랑탐사대를 시작한 첫해에 탐사 생물 전공을 수료한 '괴물 신입 대원'이 나타났어요. 바로 알렵곤충 팀의 이디엘(홍스쿨링) 대원이랍니다. 디엘 대원은 숙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도 생물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었지요. 알렵곤충 팀이 수원청개구리와 제비 등 전공을 수료한 비결을 들어 볼까요?

글★이상아 기자 · sangsanga@donga.com
사진★알렵곤충 팀, 어린이과학동아



① 귀화식물 현장교육이 열린 국립수목원에서 애벌레를 손에 올린 이디엘 대원.
② 김정훈 어벤져스와 함께 채집한 민물고기를 확인하고 있다.



Q 첫해부터 탐사 생물 전공을 수료한 비결이 있나요?

원래 생물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탐사 방법을 배운 뒤 관찰하니 늘 보던 생물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수록 궁금한 점이 많아졌고, 현장 교육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님과 연구원들을 만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현장교육에서 저처럼 생물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탐사했던 경험도 지구사랑탐사대를 끝까지 하는 힘이 됐어요.

Q 지구사랑탐사대 활동 전후 바뀐 점이 있나요?

제비 탐사를 하면서 평소 보이지 않던 제비 둥지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매미나 귀뚜라미 등 다양한 노래 곤충들의 소리가 들리면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듣기도 해요.

한번은 개구리 탐사를 하다가 말라가는 연못에서 알을 발견했어요. 알을 집으로 가져와 올챙이로 부화시키고 놓아주기도 했지요. 지구사랑탐사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Q 가장 재미있었던 현장교육은 무엇인가요?

민물고기 현장교육이 기억에 남아요. 민물고기 탐사를 하기 위해 가슴장화를 입고 족대를 들기만 해도 설렌답니다. 현장교육에 가면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민물고기 채집과 •동정 방법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하천에

•동정 : 생물의 분류학적 위치를 정하는 것

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동했어요. 제비 현장교육에서 많은 질문에 모두 친절하게 답해 주신 정다미 연구원님께도 감사해요.

Q 가족이 함께 탐사하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정말 많아요! 한번은 집 근처 습지에서 매미와 물고기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제게 오시던 아빠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넘어져 진흙 범벅이 됐었지요. 이날 아빠의 '몸 개고' 덕분에 한참이나 웃었어요. 수원청개구리 현장교육에서 모기가 아빠 얼굴만 물어서 아빠 얼굴이 통통 부은 적도 있어요. 아빠는 수원청개구리 탐사와 바꾼 멋진 훈장이라고 하셨지요. 탐사 경험만큼이나 가족과의 추억도 많이 쌓였네요.

Q 디엘 대원의 꿈은 무엇인가요?

직접 키운 곤충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곤충 식량을 만들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꼭 전달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곤충을 세상에 소개해서 널리 알리고도 싶어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외에도 멋진 곤충들이 정말 많답니다.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도 올해 지구사랑탐사대에 도전해 생물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바랄게요! 🐛